



바르게 생활하고
슬기롭게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자

사랑 · 꿈 · 믿음이 있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용안교육

용안 2학기 소식

<http://www.yongan.es.kr> (☎ 861-3610)

발행인: 교 장 고삼순
편집인: 교 감 이승용
역은이: 실무사 박은정

발행일: 2021.12.27.

겨울방학 안내

방학기간 : 2021.12.29.(수)~2022.2.6.(일), 40일간

개 학 일 : 2022.2.7.(일)

겨울방학방과후학교(돌봄) 운영 : 2022.1.3.(월)~1.14.(금)

즐거운 겨울 방학을 맞아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여 나태해지기 쉬울 때입니다. 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규칙적이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목표를 세워 뜻있고 보람찬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교 교육 활동

전라북도 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

2021년 10월 23일(토)에 전라북도 학생통계활발표대회가 전주근영여고 솔빛관에서 열렸습니다.

60여개 팀이 참가한 예선에서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 대회를 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고민을 헤쳐나가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6학년 오수현, 임선미 학생이 출전하여 동상(3위)을 수상하였습니다.

고민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상대는 친구이며 고민해결 방법으로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고민할 필요 없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하는 고민으로 마음속에서 괴로워하여 상처받지 않길 바라며 또래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통계활용대회 발표 준비>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겨울) 숲놀이 활동

11월 9일(화)에는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겨울 숲놀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학년군별로 나누어 진행된 숲놀이는 "겨울을 준비해요"라는 주제로 알록달록 단풍이야기, 도토리찾아라!, 열매 이야기 등의 활동을 해보며 여러 가지 숲놀이 활동을 통해 겨울 속 자연 세상을 느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 숲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너도 나도 활각! 2학기 자연생태체험학습

10월 7일(목)에는 1,2,4학년이, 10월 8일(금)에는 3,5,6학년이 용안생태습지공원으로 색다른 2학기 자연생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자연생태체험에서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공원에서 자연을 탐색하고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보는 등 색다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날에 찍은 사진들은 교내 숲꿈 사진 전시회에 전시 되었으며 아이들에게는 멋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6학년 윤빛나 사진 작품
(능소화 풍경)



6학년 이소윤 사진 작품
(아빠와 아들)

뉴스포츠데이 실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하여 협동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자 11월 2일 학년군별 뉴스포츠데이를 실시하였다.

경기 종목은 짐볼피구, 협동하기, 플로어컬링 등으로 스포츠클럽 및 체육교과 시간에 익힌 게임활동과 경쟁활동 중심으로 학년군 수준에 맞게 진행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승패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연수 실시

11월 19일 교직원 대상으로 도서실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대한 적십자사 응급처치교육 강사님이 맡아주셨고 연수내용은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가을 바람 독서 행사

가을 바람 독서 행사가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다. 각 학년 별로 자신이 평소 읽었던 도서들 중 생각이나 느낌, 인상 깊은 장면들을 그림, 시화,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독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좀 더 깊이있는 독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학년 발표모습>



<4학년 시화작품>



<6학년 활동모습>

불소도포 실시

11월 26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였다. 익산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으로 충치가 생기기 전에 치아에 불소도포를 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한다.

불소도포를 했어도 용안어린이들은 항상 올바른 잇솔질을 하여 건강한 치아를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시 낭송

2학기 아침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시낭송을 하였다. 시 낭송을 통해 시를 읽으며, 감성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 학생의 시낭송>



<3학년 학생의 시낭송>

책 읽어 주기 교실

6학년 학생들이 9~12월 월 1회씩 1,2학년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켜 주고, 사회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2학년에게는 책과 친근해지고 6학년은 동생들에게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1,2학년은 선배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좋은 계기가 되었다.



<9월 2학년교실에서>



<11월 1학년 교실에서>

가을현장학습을 다녀오다

10월 12일, 우리 학교 전교생은 임실 119안전체험센터와 사선대로 가을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이 아직까지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지만 가을 현장 학습은 예정대로 감염방지를 잘 지키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실 119안전체험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안전 사고의 경우를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고층에서 탈출, 지진, 태풍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체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실제로 불끄기, 좁은 공간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행동요령도 배웠습니다. 안전 체험을 마치고 방역 처리가 된 도시락 쉼터에서 맛있는 김밥도 먹었습니다. 사선대에 가서 나무와 꽃도 보고 조각 작품도 보면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임실 119안전센터 2021.10.12>

익산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참가

지난 10월 18-19일, 제 40회 익산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3학년 이태운, 임용민 4학년 최가희, 이현선, 오승현 6학년 임선미, 차진, 오수현 이상 총 여덟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평소 틈새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3학년 임용민 학생이 80m 달리기에서 3위, 임선미 학생이 포환던지기 6학년 여자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쉽게 순위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실망하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건전한 심신을 도모하여 내년 대회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6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지난 11월 5일(금) 이른 아침, 6학년 8명의 학생들이 익산역에 모였습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이른 시간임에도 졸린 기색도 없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KTX기차에 탑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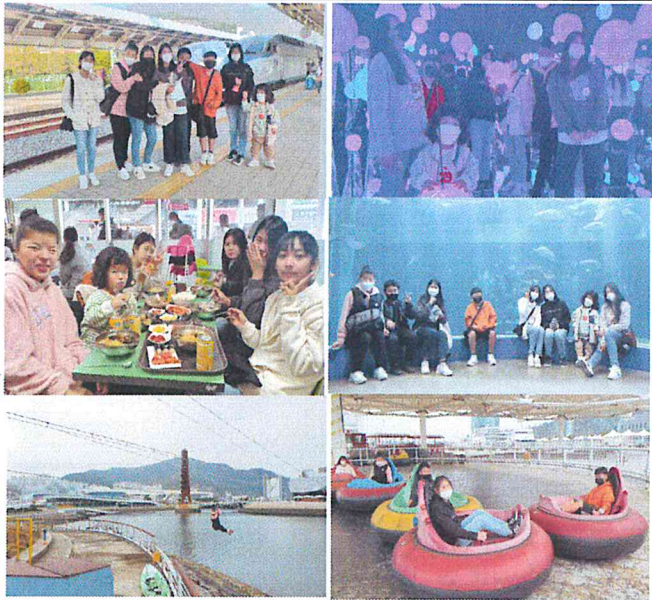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 속에 오랫동안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던 와중 위드코로나단계로 전환되면서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 힘써 조심스럽게 다녀오는 것으로 어렵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만에 도착한 여수는 익산보다 조금은 더 따뜻한 날씨와 맑은 하늘이 남해 바다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수역 근처의 여수엑스포 안에 전시관 중에 하나인 아르떼뮤지엄으로 향합니다. 아르떼뮤지엄은 자연을 주제로 12개의 다양한 미디어아트전시관으로 시각적 강렬함과 더불어 감각적인 음향과 향기까지 있는 처음 경험해 보는 독특한 전시관이었습니다. 예쁜 색깔의 배경과 멋진 조명의 도움으로 인생 사진들을 획득하고 다음 코스인 여수 아쿠아리움으로 향합니다. 그 곳에서 여러 수중 생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희귀한 벨루가(흰 돌고래) 앞에서 멋진 사진도 남깁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와 간식도 먹고, 형제자매에게 줄 기념품도 구입합니다.

바다 위를 연결하여 줄에 매달려 이동하는 아찔한 질라인도 타 보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타지 않겠다는 한 두 명의 학생들조차 힘들게 용기내어 경험해 본 뒤에는 너무나 짜릿하고 재미있어 한 번 더 타기

까지 하였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범퍼카도 신나게 즐기고 모터보트에 탑승합니다. 여수 앞 바다를 체감 시속 100km으로 질주하는 보트 위에서 여덟 명의 학생들은 두 팔을 들고 괴성을 지르며 광란의 질주(?)를 즐겼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까지 마치고 피곤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익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6학년으로서 유일하지만 큰 특권인 이번 테마식 현장 학습을 통해 이 여덟 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에 남는 멋진 추억이 마음 한 편에 두둑이 쌓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산물 먹거리 영양교육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지원 및 대한영양사협회가 운영하는 2021년도 학교급식 '우리 수산물DAY' 운영 시범 학교로 9월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수산물로 전복, 장어, 꽃게, 주꾸미, 갑오징어, 조기 등 11품목에 국내산 수산물을 지원받아 9월 식단에 전복죽, 장어엿갈장, 꽃게탕, 주꾸미볶음, 갑오징어볶음 등 다양한 수산물이 제공되었습니다.

9월 9일 수산물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수산물의 영양 및 우수성 등을 알리기 위한 수산물 영양교육을 전교생에 2교시 교육했습니다. '우리 수산물DAY' 현수막, 배너, 수산물 교육패널 등을 식생활관에 설치하여 우리 수산물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관심 및 친밀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 자주 먹기를 실천 다짐해 봅니다.



우리 수산물 영양교육



우리 수산물DAY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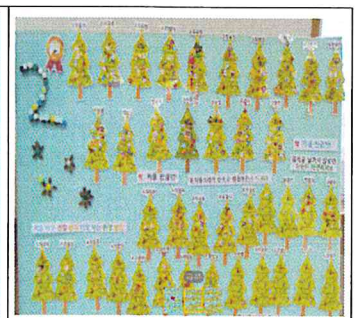
2학기 용안초 환경보호상 시상

12월 아침 모임 시간에 2학기 용안초 환경보호상을 시상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도 살리는 학교급식 '다 먹는 날'을 9월부터 매주 1회, 16회 운영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을 때마다 칭찬스티커를 주었습니다. 칭찬스티커 15개 이상 받은 3학년 이윤아, 4학년 오승현, 6학년 임선미, 오수현 학생과 교직원 6명에게 환경보호상 1등으로 구운김 세트를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10개 이상 칭찬스티커를 모은 1학년 이운서, 2학년 이우준, 오지현, 최상욱, 최라희 3학년 임용민, 4학년 정대겸, 6학년 차진, 장수지, 이연준 학생과 교직원 7명에게는 격려상으로 김부각과 김자반을 상품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1년 동안 급식 '다 먹는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용안초 학생과 교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학교급식 '다 먹는 날'은 2022년에도 꾸준히 운영합니다.



2학기 환경보호상 1등



2학기 환경보호상 2등

우리들 이야기♥



토끼

1학년 1반 이윤서

엄마토끼는 쫄쫄쫄쫄
뒷산 위로 쫄쫄쫄쫄

아기토끼는 뽕뽕뽕뽕
엄마따라 뽕뽕뽕뽕



기린

1학년 1반 최강욱

기린아, 기린아
네 목은 언제까지
길어지니?

기린아, 기린아
너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니?

'바른 말을 사용하자'

2학년 1반 이우준

요즘 친구들이 유행어를 많이 쓴다. 가끔 사용하면 재미있지만 말할 때마다 유행어를 마구 쓰면 대화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어른들과 대화하거나 발표할 때에도 유행어를 써서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유행어 사용을 줄이고 바른 말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무학산 정상에 갔어요'

2학년 1반 최라희



엄마랑 아빠랑 가희 언니랑 무학산에 갔다. 계단을 계속 올라가니 정상이 보였다. 정상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내렸다.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았다. 정상에서 다시 내려가는데 넘어질뻔 했다. 무학산 놀이터에서 조금 놀았다. 재미있는 날이었다.

소풍 가는 날

2학년 1반 이우준

소풍 가는 날은
재미있는 날
전날 밤부터
마음이 설레지요.
비가 올까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하하 히히 날씨 좋다.
비가 안 오지요.
소풍 가는 날은
추억의 날

개구쟁이 빗방울

2학년 1반 이호현

우산에 툭툭툭
빗방울이 쏟아진다.
우산을 쓰고 왔는데
툭툭툭
빗방울이 하나도 안 온다.
개구쟁이 빗방울이
장난을 쳤다.
앗!
내 옷에 비 맞는다.

재미있었던 119 안전 체험

5학년 김우영

“즐리다.”

119 안전센터에 가며 버스에서 저절로 나온 소리다. 처음으로 암벽등반을 하게 되었다.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보긴 했다. 하지만 처음이라서 조금 힘이 들었지만 재미 있었다.

다음으로 징검다리 건너기를 했다. 건널 때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주셨다. 스릴이 넘쳤지만 용감해지거 같았다.

태풍 체험을 하는데 간단한 안전 장비를 하고 시작했다. 점점 강도가 세져서 조금 힘들기도 했다. 바람이 시원하기도 해서 좋기도 했다. 바람개비 쪽을 바라보는데 엄청 빨리 돌아갔다. 저기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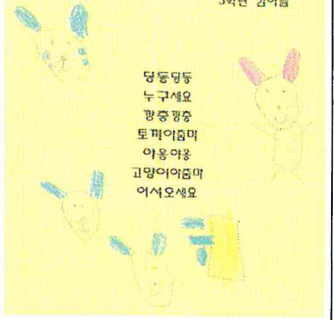
『시 화』

[국어과 활동]

4. 감동을 나타내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동시 쓰고 꾸며보기

당동당동

3학년 김어름



비누

3학년 김영민

머글머글 비누
향긋한 비누
손으로 집으려하면
딱딱하게는 비누

비빔

3학년 이은아

뛰어뛰~
배랑이 부네
나무와 나뭇잎들이
흔들 주네
나도 같이 흔들 뛰어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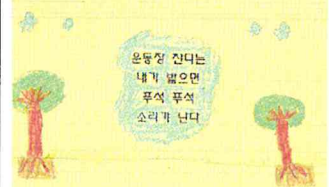
당동

3학년 이태을

당~동
누구세요?
책탁 오리 아바
명명 강아지 어빠
어서오세요

푸석

3학년 임용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